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861호 현대불교

29

2011년 11월 9일(음 10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들이고 내는 구멍은 한 구멍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을 낼 수 있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년 소녀 가정들을 위한 법회입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또 내 생명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삶 아님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수억겁 광년을 통해서 차원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이 세상에 모두 출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찰나찰나 바뀌고 바뀌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이 세상에 출현할 때 이 부모에게서 나오고 또 저 부모에게서 나오는데, 곤충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습을 바꿔 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을 쓰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때로는 이 집의 자식이 됐다가 저 집의 자식이 되고, 때로는 이 곤충이 됐다가 저 곤충이 되고, 또 때로는 짐승도 되고 새도 되고 모두 이렇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이렇게 거꾸꾸 돌아다니면서 회해서 나뉘는 이 자체를 생각할 때에 내 자식 아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형제 아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내 자식들의 울부짖음으로 내 형제들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같이 동참하여 더불어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우리 마음을 공부하는 데로 돌아갑시다.

우리 인생이란 지수화풍으로부터 우리 몸을 형성시켜서 지수화풍을 먹고 살게 하고 나중에는 지수화풍으로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은 지수화풍으로 가공된 물주머니 속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속 생물이 물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또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에 여러분이 모두 자기 몸통이 속의 생명들로서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몸통이 속의 생명들은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를 몸통이에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나.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인과로 인해서 인과성이라든가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내 영혼과 더불어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같이

형성된 것입니다. 형성했다는 이 자체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불가에서는 이로부터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이 천안 신족 속명 타심,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현재의 말로 한다면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가 차원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바로 불기둥이라고 이름한다면, 땅을 딛고 하늘을 꿰고 불기둥이 서 있는데 수레가 불기둥을 싸서 돌고 있어요. 이 기둥이 가운데 있고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게 우리 생활이요, 모두가 우리 생활인데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 근본 기둥, 그 자체에 부합이 되어야만 오신통에서, 그 수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아까 용어를 변경해서 오신통을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그랬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됐다가, 영계성이나 뭐니 모두가 지금 술술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게 하려면, 그 나오는 구멍에다 다시 입력을 해야만 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들어가는 대로 되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울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통 자체가 컴퓨터라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던 것이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 그 구멍에다 다시 일임해 놓는다면 입력이 다시 돼서 앞서의 입력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털구멍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방편으로 말합니다. 한 털구멍의 들이고 뱀이 그렇게 광대하다고 그랬어요. 털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털구멍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들이고 내는 것

은 단 한 구멍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들이고 내는 구멍은 한 구멍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여기도 들이고 낼 때에 진정코 의심을 하지 말고 '나를 이끌어 나가고 형성시킨 주인이 바로 나의 마음 가운데의 선장이로구나. 나의 뿌리로구나. 내 몸이 싸이라면 나의 근본 뿌리는 바로 나의 주인이로구나.' 하고 거기가 맡겨 놓으세요. 진정코 내가 움직여지고 보고 듣고 가고 오고 말하고 하는 일거일동이 바로 그 눈으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생각할 때 진짜 믿고 거기가 맡겨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 맡겨 놓을 때에 통신이 돼서 생명의 의식들이 전부 작용을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모습과 생명의 의식을 가지고 이 몸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 큰 흑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큰 회사라고 해도 됩니다. 이걸 국토라고

해도 됩니다. 이 국토에서 모든 자생중생들이 살고 있는데 신호가 가면, 내 마음에서 통신이 가면 벌써 대뇌를 통해서 중뇌를 통해서 책정이 돼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되면 모든 생명체의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공장장들이 전부 작용을 하게끔 합니다.

이것은 심성의학이기도 하지만 심성과학이기도 합니다. 이름만 거창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이 문제입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라, 잘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면서 때어 놓을 수 있는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신호가 가서 내 한생각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따라 줄 수 있다면 바로 더불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즉 시냇물로 한다면 원자 속에서 분자로 하여금 입자가 돼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이고 내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응신이 되신단 말입니다.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생중생들에게 인과 밖을 조복 받게 되면 부처님 국토에서 날날이 보살로 화해서 헤아릴 수 없이 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세계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 정신세계 50%를 아주 망각하면서 모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걸려서 돌아갑니다. 50%와 50%가 같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여여하게 돌아가며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고 물리가 타지고, 아주 마음이 천 리를 가도 간 사이가 없고 와도 온 사이가 없이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면서도 "가고 오는 것도 도가 아니라, 보는 것도 도가 아니라, 아는 것도 도가 아니라, 듣는 것도 도가 아니라, 네가 어디서 나온 줄 아는 것도 도가 아니라" 하셨어요. 왜냐? 실감나요. (물건을 들어 보시며) 과학적으로는 이 그릇이 얼마만 하고 물이 얼마나 담겼다는 것을 알아내는 거지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은 이것을 보기만 하는 건 도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줄 알면서도 이거를 갖다 먹지 못한다면 이건 도가 아니다 이거지요. 남이 목마를 때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어야만 이 그것도 이름해서 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신계라는 것을 이름으로만 알아서 '뭐 말라빠져 죽은 거야?' 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나뉘시는 법을 여러분도 가정에서 나뉘고 돌아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나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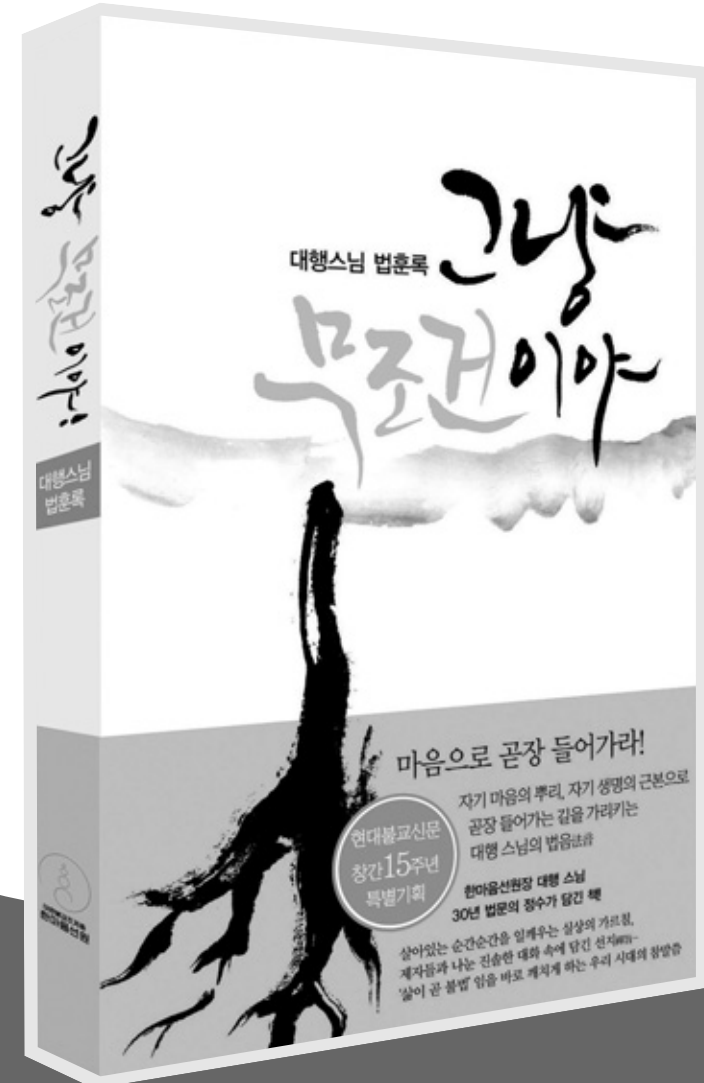
- 본문 중에서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상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생활이 바로 도(道)이며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29면에서 계속

가요 아버지가 됐다 형제가 됐다 남편이 됐다 자식이 됐다 순간순간 찰나찰나 바뀌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부처님도 한생각에 모든 자생중생들이 화(化)해서 전백역화신으로서 범신이 되시고 화신이 되시고 응신이 되시고 또는 아미타도 되시고 아축도 되시고 관세음도 되시고 지장도 되시고 약사도 되시고 닥쳐오는 대로 말입니다.

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여보!" 하고 있을 때는 금방 남편이 됐죠? 그런데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애, 아무개야!" 하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또 아들이 된 거예요. "형님!" 하고 들어오니까 금방 형님이 된 거죠. 그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돼지가 나를 살려 달라! 해서 부처님의 한생각이 응하면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되어서 돌 아니게 하시니까 돼지가 건져지죠. 돼지의 무명을 벗고 한마음이 돼서 이 세상에 형성되죠. 또 소가 응해 달라고 할 때는 소 속으로 들어가서 소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자기 용도에 따라서 원하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그 천차만별로 원하는 것을 다 응해 주실 수 있다는 건 한생각에 헤아릴 수 없이,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가듯 헤아릴 수 없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습도 각각이요 이름도 각각이요 용도도 각각으로 전부 변해서 나투신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소릴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도가 저 높은 데 있는 줄 아는데 도는 항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데 있습니다. 생활 속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활이 없는데 부처님이 어디 있으며, 내가 없는데 상대가 어디 있으며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여졌고 부처님도 계산 줄 알았지 내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사대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알라.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고 너부터 터득해야 이 세상의 모든 섭류가 터득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해가 다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건 나만, 각자 여러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 가정이 있다면, 이 거 보세요. 여러분이 우연히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때에 상인은 자동적으로 상인들끼리 모이고 정치인은 자동적으로 정치인들끼리 모입니다. 그렇듯이 불건도 자연적으로, 금은 아무리 떨어져도 닳아도 금방으로 갈 것이고 냄비는 냄비전으로 갈 것이고 강통은 강통전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라 오라 하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도 그 차원대로 모임이 있어서 만난 인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탓을 하지 말고 모두 내 탓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강통 열 개가 모여 있는데 그 강통들이 말합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울그렁울그렁 해 봤자야 소리만 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열 개의 강통들이 다 '내가 강통 된 탓이지.' 하고 자기 자신 탓이라고 거기가 들고 돌아간다면 그 강통이라는 모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이 너그럽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이 따귀를 때린다 하더라도 '허! 내가 전자에 저 사람 따귀를 때렸구나.' 또 나쁜 사람을 볼 때 '아, 전자에 모자랐을 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 과거에 살아온 그 업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일이

름 하는 놈이 뭐가 그렇게 번뇌가 일어난다고 하고 신경을 쓰고 그런단 말입니까? 자기 주인에게 다 맡겨 놓고 부지런히 뛰면 되죠. 절대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내가 했는데 어쩌면 너는 보답도 안 하느냐. 내가 너를 살렸잖아.'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부처님께서도 한 사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내가 했다, 내가 먹었다, 내가 줬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두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년 소녀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다 할지라도 그네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한테 주는 거죠. 냉정히 판단해 보십시오. 바로 내 자식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나오지 않은 거는 들어갈 줄도 모르고 들어가지 않은 거는 나올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줌으로써 내가 받게 돼 있고 받음으로써 주게

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 봅시다.' 하니까 "스님은 남의 일에 뭘 그렇게 참견을 하세요?" 이러곤 싹 빠져 달아나가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았던 사람이 "아유, 걱정 마십시오, 스님!" 이러고는 내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그 내 준 사람은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옛날에 그 사람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외국에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갖고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부자가 됐죠.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주는 게 있으면 꼭 돈다고 생각을 안 해도 스스로 옵니다. 받으려고 안 해도 스스로 받아지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아주 광대무변한 법을 얘기해 줘도 소용이 없어요. 작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한 도라뭇콩 부어 줘 봤자 양쪽으로 다 새고 말아 버리니까요. 오직 관하는 법! 기도하는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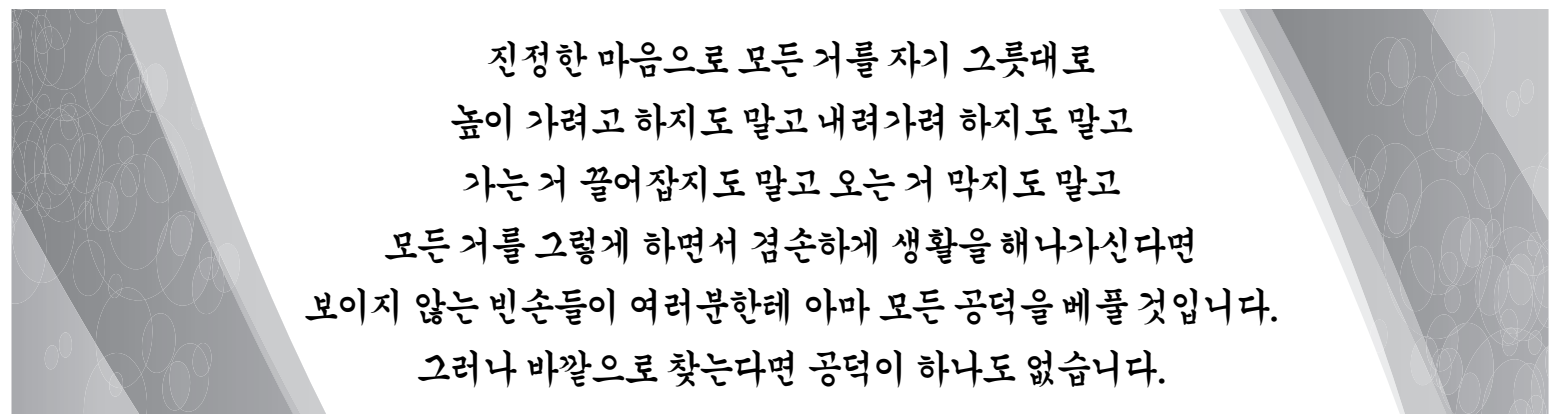
어떻게 잡아먹는 줄 아십니까? 허허허... 사람은 아주 남 보이지 않게 정신을 잡아먹고 살아요. 사람들은 정신을 잡아먹고 정신을 잡아먹고 이라고 살죠. 정신계의 마음공부를 안 하신다면 앞으로는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텐데도 그렇게 등한시할 겁니까.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났다 하면 망망대해에 배 한 척 띄워 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헤엄이 배 한 척이 가는 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배 안에 들어 있는 그 자생중생들이 선장을 믿고 모든 것을 선장한테 한마음으로 맡겨 놓고 침착하게 앉아서 관해 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깥으로 찾는 사람들은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친다면 이름 저 이름 부르면서 막 달려 달라고 일어나서 이우성을 치죠. 그러다보면 선장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배는 뒤집히고 말죠. 그렇듯이 지금 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살얼음판을 걸아가는 것과 뭐가 다르며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나는 어떤 면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모습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걸 자기가 한 대로 자기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저렇게 고생이다.' 하고 말입니다. 아픈 데 있으면 의욕이 생기질 않고 돈이 없으면 의욕이 안 생기고, 이거는 이 모습 하나 때문에 일일이 일일이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은 너무 광대하고 묘해서 한문으로는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가리라고 믿습니다. 가슴에 와 닿아야 할 텐데 가슴에 와 닿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달구지라고 했다면, 그런 것을 시체의 용어로 시체의 용도에 따라서 나는 집착이라고 하고 무역할 때 쓸 수 있는 비행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알아들을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참단을 넘어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려주어 어떤 사람이 "스님, 지금 병원에서 하혈을 하고 죽게 됐습니다." "응, 알았어." 이러거든요. 왜 그렇까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요 문 바깥에 한 발 떼어 놓는 거와 저 우주 법계를 한 발 떼어 놓는 거와 똑같아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집이나 회사를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갔다 올 수 있죠?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간다 온다는 생각을 안 해도 빛보다 더 빨리 그냥 한 찰나입니다. 그래서 빛보다 더 빨리 몸속에 있는 그 업식들, 악업선업들이 전부 보살로 화해 가지고선 모두 그렇게 중용을 하는 거죠.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4년 11월 13일 국내자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스님이 어떻게 사나. 요건 어떻게 행동을 하나. 요즘은 어떻게 사나. 조거는 어떻게 있다.' 요걸 일일이 따져서 말을 전장하고 말이 많아진다면 이것은 공부라기보다는 업을 자꾸 지어서 태산처럼 쌓아 놓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며 무슨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돈도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 집이 화목하고 웃음이 있을 때에 '아, 저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돈도 들어오는 거지 아니, 돈이 미쳤다고 만날 싸움질만 하는 데로 들어가요?

우리가 부처님이다 여려다 이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생명체들이 천차만별로 있는데, 항상 여러분은 내가 먹었고 내가 했고 내가 말했고 내가 줬고 내가 산다 이러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물 한 컵을 먹어도 더불어 같이 먹는 거지 어떻게 내가 혼자 물을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마따나 "내가 했어도 한 사이가 없고 한 사이 없으면서도 더불어 같이 했느니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번뇌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이 무슨 신경을 쓰고야 단입니까? 여러분의 몸뚱이는 집합소와 심부름꾼과 관리인부원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심부

데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준다' 하고 '내가 줬으니' 이런 이름이 나겠지. 내가 줬으니까 덕이 오겠지. 내가 줬으니까 나중에 뭐가 국물이라도 오겠지.' 이런 생각일랑 아예 마십시오. 심부름꾼이 부처님 심부름을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심부름을 잘할까?'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자기 그릇대로, 높이 가려고 하지도 말고 내려가려고 하지도 말고, 가는 거 끌어잡지도 말고 오는 거 막지도 말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생활을 해 나가신다면 보이지 않는 빈손들이 여러분한테 아마 모든 공덕을 베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깥으로 그렇게 찾는다면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계의 마음과 물질과 이름이 돌 아니게 모두를 행할 때에 공덕이 되는 거지, 내가 정신계는 싹 빼놓고 물질계만 생각하고 이름만 생각하고 한다면 어떻게 공덕이 됩니까? 어떻게 한마음의 공덕이 됩니까?

한 4, 5년 전이예요. 삼남매가 사는데 그 부모가 외국에 일 갔다가 죽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벌이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남몰래 갔다 주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내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신도한테 "여보시오! 예네들을 지금 학교에 보내야 할 텐데 학교에 보낼 돈이 없어요. 한 아이는 국민학생이지만 두 아이는 대학에 가야 하고 고등학교

아니다. '해 주시오'가 아니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는 거.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너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어. 내가 형성한 몸이니까, 네 심부름꾼이니까, 네가 고쳐서 이끌어 갈 수 있어.' 일거일동 용도에 따라서 다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고 생활이 바로 도예요. 여러분이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이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더 잘 압니다. 당신이 하는 거, 당신이 생각하는 거,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울부짖음, 당신의 쓰러짐, 이런 거는 다 자기가 더 잘 알지 제 삼자가 더 잘 압니까? 자기가 하는 그대로를 진실로 아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인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 대가 서 찾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무가 제 뿌리를 믿지 않고 남의 형상을 믿어 가면서, 남의 이름을 믿어 가면서 에너지를 나한테 공급해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그 나무로 에너지가 가지 않습니다. 바로 제 뿌리에 서만이 에너지가 제 스스로 올라가서 푸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싹은 또 에너지를 내려 보내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곤충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곤충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짐승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물에서나 들에서나 말입니다. 사람들은

Hanmaum Choir Festival

사람이나 짐승이나
몸속에 다 의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식이요 공체화.
다만 법을 들이고 내고 함이 없이 살고 있노라.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

모든 사람들이 오온의 정점을 함이 없이 하고
이 모두가 무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리라.

대행 큰스님 禪法歌 '한마음의 밝은 등불' 중에서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All Beings, Living Together as One

한마음 음악제

2011.11.12 (토) 17:00 - 13(일) 15:00, 19:0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출연 | 황병기, 이춘혜, 이승목, 전제덕
한마음선법합창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이화첼리,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후원 | 대통령속 사회통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서울특별시

| 티켓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예매 | 세종문화회관 인포샵 02-399-1114-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http://ticket.interpark.com
| 문의 | 한마음선원 031-470-3100 http://www.hanmaum.org